

# 법사위 파행에 발목 잡힌 '5·18 특별법'

### 평창에 이슈 묻히고 여야는 대치...2월 국회 '빈손' 우려 '권선동 공방'에 상임위 울스톱...쟁점 법안들도 통과 난항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중반전에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선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사퇴 요구로 촉발된 여야의 갈등으로 법사위와 일부 상임위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권의 부분 정계개편으로 인한 어수선한 정국과 평창 동계올림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 설 연휴 등이 겹치면서 국회 자체에 대한 국민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도 2월 국회 운영에 대한 압박을 약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등 '빈손' 2월 임시국회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사위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 조사 기간만이라도 권 위원장이 법사위의 사회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1일 "우리 당 법사위원들이 정리해서 내놓은 의견은, 강원랜드 사건이 국회법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사 기간만이라도 물론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사회권을 넘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일부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관련한 '보이콧' 방침을 풀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난번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상임위 법안 심사와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로 일부 상임위의 가동이 멈추면서 새해 예산 집행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2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여야가 2월 처리에 노력하기로 약속한 물관리 일원화법과 5·18 특별법은 물론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도 이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하면서 2월 국회 현안이 문힐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등으로 남북관계 문제가 올림픽과 함께 정국의 이슈를 장악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과 사법개혁 등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온 주요 쟁점 과제도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설 연휴(15~18일)로 나흘을 쉬게 되는 만큼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그만큼 더 부족하다는 점도 2월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다.

일각에선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쏟아질 여론의 파고는 비판과 설 민심 등을 고려해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절충점을 찾아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미애-현송월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맨 오른쪽)와 삼지연 관련약단 현송월 단장이 지난 8일 오후 강원도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련약단 특별공연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선거 4개월 앞인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깜깜'

### 예비후보 등록 20일 남아...여야, 증원엔 공감대·규모는 이견

'6·1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 의원과 군수 예비 후보 등록이 신청이 시작된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정수, 그리고 기초의원 총 정수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벌써 시한을 2개월이나 넘긴 셈이다.

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다. 국회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현재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번 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현 단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입지자들의 혼란

이 가중되고 있다. 어느 지역까지 표밭을 다져야 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도 입지자들은 주판알을 빙기고 있지만 좀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의원 정수 문제도 예측하기 어려워 예비 후보들만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일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분개했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이 또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헌정특위 산하 개헌소위는 지난 7일부터 개헌의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의원정수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개헌 시기를 놓고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각각 고집하고 있어 이 또한 합의점 도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안 도출까지는 지난해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홍준표, 당 회의 대신 'SNS 정치'

### 한달째 최고위 안 열어... '독선 정치' 논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내 독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를 한 달 넘게 열지 않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데 대해 당내에서 '소통 부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달 2일 이후 매주 월·수·금에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다만, 당협위원장 선정 등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비공개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최고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최고위원과 4선 이상 중진의원 연석회의도 지난해 8월23일 이후로는 소집하지 않았다.

대신 홍 대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종종 정제되

지 않는 발언이 나오거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당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에 대해 소통 부재와 독선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다. 4선 이상 중진의원 12명이 지난 8일 홍 대표에게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의 재개를 공개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홍 대표는 그러나 각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 대표실은 항상 열려 있다"며 중진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특히 '부패로 내사·수사 받는 사람', '중진이면서 당협위원장에 떨어진 사람', '자기 상가(喪家) 안 왔다고 당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 등의 표현으로 면면을 평가하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꼬아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박주선·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거론

창당을 코앞에 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 바른미래당의 지도체제로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의장, 바른정당 유승민 당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당 측에서는 호남의 상징성 차원에서 박 부의장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9일 안철수 대표가 당내 중진 의원들과 국회에서 회동한 자리에서도 박 부의장을 공동대표로 추천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한 참석자가 11일 전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유 대표가 당의 간판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정당 원내대표의 경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유임 형식으로 맡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의원 숫자나 선수 등을 고려하면 김 원내대표가 5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총장의 경우 국민의당 김광영 사무총장이 그대로 맡는 대신,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에서 맡는 방안 등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용호 국민의당 탈당... "당분간 무소속"

국민의당 중립파로 분류됐던 이용호 의원이 11일 탈당, 당분간 무소속으로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21석으로 줄었고, 13일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출범하는 바른미래당의 의석 수는 30명이 된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최종 결정돼 국민의당이 소멸을 앞둔 시점에서 긴 고민을 끝내고 탈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과 현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최선의 선택이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것을 가슴 아리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고 싶은 말은 산처럼 많지만, 이 정도로 말을 그치고자 한다. 저는 잠시 어느 길도 선택하지 않고 자숙과 자성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 악 학 과	2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시 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 형 일 : 2018. 2. 24(토)

###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0	
		통합예술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학과(M.S.W.)	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0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	
		실용음악학과(M.A.)	0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안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